

[기윤실 강의 01] 한국기독교사 초기, 잊을 수 없는 장면들

가. 초대교회 부흥과 하나님의 말씀

A. 최초 성경 전래: 1816년 9월 초, 영국 함선 Alceste호(함장 Murry Maxwell)와 Lyra호(함장 Basil Hall)가 충청도 庇仁灣 馬梁鎭 앞 갈곶 도착, 성경 전함

- 귀츨라프(K.F.A.Gützlaff)/ 토마스(R.J.Thomas), 1865년, 1866년 9월 2일 사망
- 윌리엄슨, China Inland Mission의 다우드웨이트 1883-1884, 로스 매킨타이어

B. 성경 번역사업: 만주와 서울: 스코틀랜드 U.P.C., 1872년부터 로스(羅約翰)의 만주선교(營口, 牛莊) 시작, 매킨타이어(馬勤泰)가 합류, 한국어, 성경 번역 준비

- 로스, 1877년 "*Corean Primer*", 1879년 "*History of Corea, Ancient and Modern*" / 1879년 매킨타이어가 4명의 한국인 수세

- 1882년 3월 누가복음 3천부 인쇄, 5월 요한복음 3천부 인쇄/ 일본과 서간도 한인촌(金靑松), 徐相嵩을 통해 서울에까지 전파-1887년 「예수성교전서」로 완역

- 서간도 한인촌 전도, 1882년부터 金靑松의 전도-1884년 75명, 85년 초 여름에 25명, 1885년에는 600 여명의 수세 요청자들-서북지방 교회 설립의 기초

- 서상륜의 선교활동: 제 6수세자/ 1882년 10월 만주 출발, 1885년 로스에게 돌아옴, 3월 8일자 편지/ 70여 명 서울의 세례 청원자 보고/ 4월 5일 A.U 입국앞섬

- 성경번역(한국): 한문 성경 외에는 현재 일부의 성경만이 이용될 수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성경을 번역해 달라는 한국인들의 간절한 요구가 있다.

C. 성경의 보급과 권서: BFBS 1896~1940년까지 한국 반포 성경 총 2,062만여권, 매년 458,255권 반포/ ABS 1901~1919년까지 총 266만권, 매년 140,455권

- 베사: BFBS 한국지부 4년간 권서: 오늘날 한국에는 성경이 뚫고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다. 성경은 교도소와 병원, 나환자 수용소, 매춘굴, 도박판, 아편소굴 그리고 궁궐과 가게를 통과했다. 성경은 추악한 거지소굴과 산중의 절간, 가난한 초가집, 어부의 거룻배와 뱃사공의 나룻배 그리고 학교와 대학에까지 들어갔다. 그리하여 성경을 읽음으로써 이러한 모든 곳에서부터 '거듭난 사람'이 나타나고 있다.

- 권서의 역할(이사야 52:7)

D. 사경회를 통한 말씀의 흥왕:

1. 1908년 미 북장 800여회 5만여명, 신자들의 60% 정도가 매년 사경회에 참가
2. 1901년 평양에서 개최된 사경회, 삭주 창성 지방의 자매들, 300리길,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옴
3. 1902년 평양의 '사나이'사경회, 400여명 참석, 전라도 목포 무안에서 참석
4. 1909년 10일간의 성경공부를 위해, 머리에 쌀자루를 이고 300마일을 걸어왔고, 어떤 이는 아이들까지 업고 왔는데 그들은 손때묻고 닳은 성경책을 갖고 있었다.

- 일제 치하 신앙의 자유가 제약당하던 상황 속에서도 즐기차게 계속된 사경회는, <사도행전> 기

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말씀의 흥왕'(행 6;7, 12;24, 19;20)을 의미했고 그것을 통해 한국 교회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었다.

★ 물론 성경 그 자체가 모든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복음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요소이다. 그러나 한국의 성경은 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해 온 것이 분명하다...성경공부와 성경 공부반은 한국 교회의 발전에서 가장 독특하고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것들 속에서 신앙과 지식의 기초를 놓아 왔다.

★ 성경은 한국에서 제일 공부가 많이 되는 책이다. 교회생활의 매우 뚜렷한 특징은 성경공부에 있다. 성경공부반은 겨울에 열흘에서 2주일 동안 중심지에서 열린다. 겨울마다 족히 12만 5천명의 사람들이 성경공부에 참여하기 하기 위해 모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목적은 단지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배운 것을 출신교회에 전달해 주기 위한 것이다.

★ 한국 교회의 주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친 때문이라는 것이 충분히 관찰한 사람들의 확신이다.

※ '성경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Bible-loving Christian) 혹은 '성경을 사랑하는 자들'(Bible lovers), 한국의 기독교를 '성경기독교'(Bible Christianity)라고 부름

이 땅에서 발전되고 있는 기독교는 출중하게도 성경기독교이다. 복음전도자들이 전도하기 위해 가져가는 것은 성경이다. 믿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것에 의해 사람들이 구원받고 있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매일 먹고 마시는 양식은 성경이다.

성경은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자양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나. 반봉건사회개혁운동: 관리탐학에 대한 저항과 천민해방운동

A 관리탐학 및 부정조세 저항운동/ 야소교 있는 지역에 관리부임 사양/ "이번에 새로 난 북도 군수 중에 어떤 유세력한 양반 한 분이 말하되 예수교 있는 고을에 갈 수 없으니, 영남 고들로 옮겨 달란다니 어찌하여 예수교 있는 고을에 갈 수 없나뇨 우리 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도라 교를 참 믿는 사람은 어찌 추호나 그른 일을 행하며 관장의 영을 거역하리요 그러나 관장이 만약 무단히 백성의 재물을 빼앗을 지경이면 그것은 용이히 빼앗기지 아닐 터이니 그 양반의 갈 수 없다는 말이 이 까닭인 듯"(1899.3.1, '대한그리스도인회보')

B 백정신분 해방운동: 곤당골(미동)교회-S.F.Moore(모삼열) 학교에 아들 봉출이를 보냄- 뒷날 에비슨의 도움을 받아 열병 회복, 朴成春-1898.10.28일 서울 종로 독립협회 주관의 만민공동회에서 연설-"나는 대한의 가장 천한 사람이고 무지몰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忠君愛國의 뜻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이에 利國便民의 길인즉 官民이 합심한 연후에야 可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遮日에 비유컨대 한개의 장대로 받친즉 力不足이나 많은 장대가 합한즉 그 힘이 견고합니다. 원컨대 합심하여 우리 大皇帝의 聖德에 보답하고 國祚로 하여금 萬萬歲를 누리게 합시다"(鄭喬 『대한계년사』광무 2년 戊戌條)

[기윤실 강의 02] 한국교회의 정치운동, 인권운동

가. 한국 교회의 사회 참여 본격화(1960)

A. 해방 후의 민족사적 과제

- 친일 청산: 교회 안의 신사참배 후유증 포함
- 외세(미 소)에 의한 분단을 극복하는 것
- 민주주의 사회 건설과 민족문화의 재건

B. 이승만 정권의 실패와 4·19혁명, 교회의 자성

- 친일청산 실패: 남북 대치, 사회 불안을 이유로 친일세력을 재 등용
- 민주주의 정착 실패-1948 국회를 통한 간선, 1952, 1956, 1960 선거부정→**4.19혁명**
- 1960.3.15일의 정부통령 선거, 이승만 정권을 붕괴시킨 4월 민주혁명으로 이어짐.
- **4·19혁명**: 분단과 전쟁, 독재로 얼룩진 한국사의 “암울한 구름을 뚫고 나온 한줄기 빛”
- 한국기독교연합회(→뒤에 NCCK), 4·19성명 발표, 정부개혁, 국민의 기본권 보장, 부패 척결, 법치주의 확립 요구→반성은 철저하지 못했고 교회 전반에 확산되지 않음.

C. 5·16군사 쿠데타와 한국 교회

- 1961.5.16, 군사 쿠데타, 한국기독교연합회는 “군사혁명”이라고 부르며 나라를 “공산침략에서 구출”하고 부정부패로부터 “재건하기 위한 부득이한 처사”라는 지지 성명 발표
- 한경직, 김활란 등 교회 지도자들, 6월 하순 “혁명정부의 국제적 지지”를 얻기 위해 渡美.
- **한일국교 정상화에 대한 교회의 반대**
- 박정희, 1963.12. 대통령 취임, 일본 자본으로 경제개발 위해 한일국교 정상화를 서두름
- 협정의 내용이 굴욕적이라고 판단, 교회는 한일국교 정상화 및 한일협정 비준 반대운동에 가담← 일제강점하 신사참배 등의 박해를 당했던 한국교회가 보였던 용기 있는 행동→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는 계엄령을 선포, 1965.6.22 한일협정 조인.
- 강신명, 강원룡, 김재준, 한경직 등 215명의 교회지도자들, 한일협정반대구국기도회, 성명- “불순 저열한 외세의 예속”과 “온갖 형태의 독재와 모든 불의 부정부패에 항거한다”
- 이를 계기로 전국 각지 교회, 교파초월 구국기도회, 굴욕적인 한일협정 비준에 반대함.
- 이때의 경험은 교회의 비판적 사회참여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됨.

D. 삼선개헌과 교회의 보수 진보

- 박정희 정권, 1969년 삼선개헌, 박정희 정권이 장기집권을 강행하려 함
- 김재준·함석헌·박형규 등 삼선개헌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에 참여, 개헌반대운동
- 김재준, 범국민투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음-NCCK도 9월 개헌반대 성명 발표
- **보수 교회의 정부 지지와 교회의 양극화 시작**
- 보수교회의 김윤찬·김준곤·김장환 등, 교계의 개헌반대 활동을 성직의 권위를 도용하는 일이라 비판, 대통령을 위해 기도할 것 요구-대한기독교연합회라는 단체도 삼선개헌 지지.

- 1969년 삼선개헌 찬반논쟁, 기독교계를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으로 확연히 나누는 계기
- **진보적 기독교 지식인들, 노동자, 빈민선교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침-도시산업선교회**

나. 기독교계의 인권, 민주화 운동 (1970년대)

A. 유신체제와 그리스도인의 민주화투쟁, 남산 부활절예배 사건

- 1972.12. 유신헌법 공포, 유신체제가 시작-대부분의 교회, 적극적 혹은 묵시적으로 지지
- 유신체제:대통령-통일주체국민회의 선출, 국회의원1/3 임명, 1선거구 2명 선출, 긴급조치
- **남산 부활절예배 사건:**1973년 4월 남산 야외음악당, 부활절 예배, 유신체제반대 전단지.
- 6월말 박형규 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 회원, 빈민선교 활동가들-국가내란예비음모 혐의구속
- 이를 계기로 기도회 가두시위가 등장, 서울대 학생과 자유민주체제의 확립을 요구 시위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선언 채택:** 인권탄압으로 NCCK 1973.11. 채택
- 인권선언, 인권탄압 해결을 위해 교회가 투쟁할 것을 다짐함.
- 마땅한 지원 세력이 없던 민주화운동 세력에게 이 선언은 큰 격려가 되었고, 기독교가 비기독교인의 민주화운동과 만나 연합하는 계기가 됨.

B. 정부의 통제 강화,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이 확산됨

- 이에 당황한 정부는 1974년 1월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와 제2호를 선포-유신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모든 행위를 금함-NCCK는 시국기도회, 긴급조치철폐회, 유신체제폐지-**김관석 총무**
-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1974.4 '민청학련' 명의로 "민중·민족·민주선언" 등을 발표
- 1974.3.말부터 학생운동 지도부 검거 시작, 253명 군법회의 송치, 사형 등 중형 언도

C. 기독교계의 인권운동 본격화와 목요기도회의 시작, 교단의 시국 선언문

- 기독교인 구속자 증가, NCCK 1974.5,"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성서적 신앙"에 의거, "인권의 유린을 방지 또는 제거하는 책임"을 수행코자 인권위원회. 기독교계 인권운동 본격화
- 이어서 목요기도회 시작: 1974.7. 한국기독교교회관, 긴급조치 위반혐의 기소자들을 위해
- 정부의 탄압 속에서도 목요기도회는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됨.
- **교단과 총회의 잇따른 시국선언문 발표:** 기장, 예장 통합, 감리회, 총회차원 시국선언문
- 1974년 11월에는 한국교회의 진보적 신학자 66명이 "한국그리스도인의 신학적 성명" 발표→한국교회의 인권·민주화 운동을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뒷받침해 줌.

※ 민중신학의 태동

D. 강화되는 유신체제와 민주구국선언, 그 반향

- 계속되는 정부의 탄압-반인권적인 긴급조치들을 남발-9호까지, 구속된 사람 800여명.
- 사회안전법, 민방위법, 교육 관계법-교수 재임용제, 교수들을 학원에서 추방-1976.2. 문교부는 전국 대학에 교수 재임용을 실시하여 총 416명의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킴.
- 삼엄한 유신체제도 교회의 입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음-1976.3.1, 천주교와 개신교 지도자들,

명동성당에서 개최된 **3.1절기념미사**, “민주구국선언”을 발표-긴급조치 철폐, 유신헌법 철폐, 박정희 정권 퇴진 요구-함세웅·문정현·김승훈/ 개신교의 함석헌·문익환·안병무·이우정 등 주동자 20명 긴급조치로 엮음/ 천주교 개신교 저명인사, 국내외적 반향 큼

E. 교회의 정교 유착과 보수, 진보의 분리

- 1970년대, NCKK 중심, 독재정권에 저항-로마서 13장 근거, 세상권세에 복종을 주장하며 박정희 정권과 유착하는 모습을 보임-보수와 진보의 대립 구도가 고착되어 감.
- ICCC 노선 추종의 교단들, 한국예수교협의회와 국가조찬기도회는 독재정권을 지지.
- 조찬기도회는 불의한 정치권력을 정당화해주는 정치적 도구: 1973.5 CCC의 김준곤
- 세계교회협의회(WCC)의 한국 민주화, 인권운동 지원-독일 미국 일본 등
- 1975년 4월 NCKK 총무 김관석과, 조승혁·박형규 등이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 WCC는 1975.11, 한국 문제로 소집, 독 미 대표들과 김재준,이승만,김인식,오재식 참석

[기윤실 강의 03] 평화통일의 길과 그리스도인

가. 기독교계 통일운동의 모색 (1980년대-)

A. 신군부의 등장과 기독교

- 1979.10, 박정희의 피살후 전두환의 신군부 등장-1980.5, 광주민주화운동/ 기독교청년협의회회원 김 의기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투신, 신촌에서 기독교인 노동자 김종태 분신, 감리교 목사 임기윤 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관련, 계엄합동수사단에 연행 의문의 죽음
 - 이런 분위기에서도 교회 지도자들의 전두환 정권 지지: **1980년 8월 6일의 "나라를 위한 조찬기도회" 참석, 전두환 상임위원장 축복, 한경직·조향록·김지길·정진경 23명-생중계**
 - 조찬기도회 직후 전두환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체육관 선거"로 제11대 대통령에 선출
 - **전국교역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기독교농민회, 기독교노동자연맹, 기독교여민회 등의 활동→1980년대에 이들이 평화통일운동, 민주시민운동, 교육운동, 학생운동, 청년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여성운동 등 다양한 기독교 사회운동을 주도해 나감.
 - 민중신학과 산업선교에 뿌리를 둔 90여개의 민중교회 등장-Y 등 시민사회운동 확대
- ※ '복음주의권': 1981, 보수주의자들의 시국문제 관심/ KNCC와는 다른 차원
- 1987.6월항쟁 이후 시민운동으로 전환 시작-1987.11. 대선을 맞아 "공정선거감시와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공선거위, 복음주의청년학생협의회"→1988.3. 복음주의청년연합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1987),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연,1989), 복음과상황(1991) 등

B. 민주화 운동의 한계인식과 진보 기독교인의 통일 논의

- 1960년대 초반부터 한국 사회, 자유와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발전시키는 한편 공산주의와 대결하지 않으면 안될 이중의 관제를 안고 있었음
- 기독교인, "공산주의와 대결하는 동시에 우익독재나 독점 자본주의와도 대결"해야 했음
- 이는 북진통일 아니면 무력으로 남한을 지켜야 한다는 전투적 대결논리에서 벗어난 시각
- 비판의 화살이 남한 사회도 겨냥했다는 점에서 통일 논의의 전환점을 마련해줌.
- 안보논리는 민주화운동을 용공세력으로 몰아감-민주화를 위해서도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
- 1972. "7.4공동성명"후 NCCK는 <통일및사회정의 기독교협의회>를 창립
- 1970년대 교회의 통일 논의는 진보적 기독교인 개인 차원에서 전개-장준하 문익환
- 김재준 등의 민주수호국민협회, "7.4공동성명"을 맞아 민중참여의 통일을 주장한 성명서

C. 1980년대 교회의 통일운동 성과

- 70년대까지의 정부의 안보논리에 대한 비판적 극복의 논리-분단 극복의 논리 모색
- <민주화와 통일>의 불가분 관계 인식: **1970년대까지 진보세력, 민주화 운동을 통일에 앞선 전단계 운동으로 인식→1980년대에 들어서 한국사회의 민주적 변혁이 민족통일의 과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인식으로 확산됨**←통일의 주체가 누군가에 대한 문제 제기
- NCCK, 1985년 2월 제34차 총회에서 "한국교회 평화통일 선언"을 채택, "평화의 염원은 약한 자, 가난한 자, 눌린 자, 곧 민중이 가장 깊이 탄식하고 갈망하는 민중의 현실"이라 주장→분단극복과

통일운동의 주류가 민중이어야 한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명시

- **교회 내 통일 인식의 확산**/ 1980년 3월 기독교장로회는 통일이 교회의 선교적 과제임을 천명함/ 통합측도 1986년 제37차 총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를 선포, 그리스도인은 “모든 원수관계를 없게 하고, 화해의 대업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민족을 화해시키고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고백함.
- 교회의 신앙고백 가운데 민족통일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 신앙고백서가 처음이었음.

D.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 선언>: NCKK 통일선언

- NCKK, 1982 통일문제연구원 운영위원회 상설기구화,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 시작함.
- NCKK와 가맹 교회들, NCKK 제37차 총회에서 채택, 1988.2.29,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 선언**”을 발표함.[NCKK 통일선언]-죄책고백부터 시작함
- 1972년 7·4공동성명의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의 3대 정신에다 인도주의와 민주적 참여의 두 가지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첨가-이 5개의 기본원칙은 1960년대 이후 한국 교회의 진보세력이 주장해온 통일의 기본원칙을 집약한 것이었음.
- **평화체제 수립과 주변국의 담보를 전제로 미군철수와 군비축소를 주장함**
- “**NCKK 통일선언**”의 영향 및 역사적 의의: 1) 한국 교회 진보와 보수가 이 선언을 계기로 통일논의의 물꼬를 튼/ 2) 교회 밖의 통일운동에 큰 영향을 미침-이 선언은 민간에 의해 이룩된 최초의 본격적인 통일 선언, 한국기독교 통일협의회를 극력 저지해온 정부가 받은 충격이 매우 큼-이해 **7.7 선언**(“자주 평화 민주 복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약속”) 도출 유도-1991.12.13의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협의회>와 1991.12.31 가서명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은 NCKK 통일선언의 내용을 거의 담고 있음/ 3) 세계 기독교 운동에 영향: 1988.4.25-29 세계기독교 한반도 평화협의회 이 선언지지, 1988.11.23-25 제 3차 글리온 회의 선언서 및 1989. 7.27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관한 WCC의 정책 성명, 989.8.15-26/ 세계개혁교회연맹의 ‘한반도의 통일과 화해’결의안, 이 선언 지지
- ※ **보수 교회의 반대**-한국개신교단협의회,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한국기독교실업인회 등 보수 단체들은 그 주장에 대해 심각한 이의 제기함/ 민족주의적 낙관론, **미군철수**, 남한 사회와 남한교회의 분단 책임론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임/ **통일문제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이런 의견 차이**는 1970년대 이후 전개된 선교신학의 양극화 현상과 연관되어 있으며, 본질적으로 북한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대립이었음/ **진보 진영**에서는 한국의 반공적 기독교가 통일의 길을 차단시켜왔다고 주장한 반면, **보수 진영**은 기독교인들의 전투적 반공 활동을 국가에 대해서 행한 교회의 중요한 봉사로 평가함.
- 1981.11, 조국통일해외기독교자회(회장 이화산)와 북한의 조평통 및 조기련 대표들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통일대화를 가짐-<비엔나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 전후 11차에 걸쳐 대화
- **도잔소(東山莊)협의회**: 1984.10, 일본 도잔소에서 세계교회협의회 국제문제위원회 주최의 도잔소 협의회 개최, 남한교회와 조그런 대표(불참)들을 초청/ 한국의 통일은 남북한 교회의 책임이라는 선언을 발표하게 됨-통일의 책임이 남북한 교회에 지워짐
- **도잔소협의회**는 그 후 1986년의 **글리온회의**, 1988년의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관한 한국기독교교회**

선언', 1990년대의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자 도쿄회의로 이어짐.

- **글리온 회의:** 남의 NCKK 대표들과 북의 조기련 대표들이 세계교회협의회(세계교회협의회)의 주선으로 스위스 글리온에서 세 차례 만남(1986, 1988, 1990)-제 1차 글리온 회의, 성찬예식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됨을 확인. 1995년을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희년으로 정함

E. "NCKK 통일선언" 이후의 남북 교회의 만남

- **남북 인간띠 잇기 대회:**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희년'을 앞두고 교회는 1993년 8월 15일 서울 독립문에서 임진각으로 이어지는 길 위에서 6만 5천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남북 인간띠 잇기 대회를 주최함-평화통일에 대한 대중의 열망을 보여주는 행사이자 민중을 통일의 주체로 내세운 기독교 통일운동의 상징적인 행사였음.

-**1990년대 이후 북한돕기운동:**

1.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로 해외원조 격감 (에너지 식량난)
2. 몇 년 동안의 흉수로 북한의 식량난
3. 한국 교회의 북한 식량 지원-진보와 보수의 손 잡음/ 1969년 박정희의 3선개헌 문제로 참여하게 분열된 한국교회가 민족문제로 연합. 대표적인 기관이 남북나눔운동 등

참고문헌

『대한성서공회사』, II. (1993, 1994)

『한국기독교의 역사』III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9)

이상규: 「해방 후 한국교회의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한국기독교와 역사』4호, 1994)

이만열: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선언의 역사적 의의」(『한국기독교와 민족통일운동』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